

다산포럼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실록을 지킨 사람들

고, 이때 홍문관에 보관해둔 각종 서적, 춘추관의 왕조실록, ‘고려사’를 편찬할 때 참고했던 사초들, 승정원의 ‘승정원일기’ 등이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충주와 성주의 사고에 있던 책들까지 다 소실돼버렸으니, 전주사고의 책마저 타버렸다면 조선전기의 사료들은 완전히 인멸되었을 것이다.

왜군이 전라도로 들어오기 위해 금산에서 조선의 관군·의병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전주성에서는 태조의 어진과 사고의 실록을 어디로 피난시킬 것인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정음의 내장산으로 이를 옮기기로 하고, 어진을 모시는 경기전의 참봉 오희길 이 정음에 도움을 요청하려 갔다. 이때 그를 돕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이 지방의 유명 안의와 손홍록이었다.

안의와 손홍록은 노비와 머슴 30여 명을 동원하여 전주로 달려가서 어진과 전주사고에 있던 1000여 권의 책을 50여 개의 궤짝에 넣어 내장산으로 옮겼다. 당시 이들이 옮긴 전주사고의 책은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삼국사’,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고려사’, ‘동국사기’, ‘동국사략’, ‘동국통감’ 등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에 편찬된 중요한 사서들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사서는 6월 22일 내장산 은봉암에 일단 옮겨졌다가 7월 14일 다시 비래암으로 옮겨졌고, 어진은 7월 1일 응골암에 보관되었다가 9월 28일 비래암으로 다시 옮겨졌다. 비래암은 내장산의 높고 험한 곳에 있는 암자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두 옮긴 것이었다.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안의, 손홍록은 은봉암, 응골암, 비래암에서 어진과 실록을 지켰다. ‘일계기사’라는 책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안의와 손홍록이 함께 지킨 날은 53일이고, 안의 혼자 지킨 날은 174일, 손홍록이 혼자 지킨 날은 143일이었다.

경기전 참봉 오희길, 유인 등은 전주에 연락 차 가끔 왕래를 했기 때문에 내장산에 머무른 날은 안의나 손홍록 만큼 많지 않았다. 물론 안의와 손홍록도 혼자서 지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데리고 온 노비와 머슴들이 함께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내장산 승려들과 의병들이 번갈았다.

내장산에서 1년여를 머문 어진과 실록은 1593년 7월 왜군의 공격으로 전라도가 다시 위험해지자 해주에 있던 선조의 명에 따라 북상길에 오르게 된다. 정부에서 파견된 유태과 경기전 참봉 여경구와 이도길, 그리고

안의와 손홍록이 이 일을 맡았다.

7월 11일 정음을 떠난 일행은 도보로 부평까지 올라가서 배를 타고 강화도에 들어갔다. 그때가 7월 24일이었다. 이번에도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안의와 손홍록이었으며, 노비와 머슴들 30여 명이 짐을 지고 그들을 따랐다. 이들은 강화에서도 실록을 지켰으나 안의는 병이 나서 귀가하였다.

1592년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에서 내장산으로 실록을 옮길 때 그들의 나이는 각각 64세와 56세였다. 안의는 강화에서 돌아온 뒤 3년 만인 1596년 세상을 떴다. 이들은 1593년 8월 선조로부터 별제라는 종6품 벼슬을 하사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녹봉도 없는 명목만 있는 벼슬이었다.

오늘 우리가 조선전기의 역사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이 두 사람 덕분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오늘날 교과서는 물론,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도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정음에 가면 이들을 모신 남천사라는 작은 사당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여기에서만 기억되고 있다. 안의와 손홍록, 그리고 그들을 도와 천 리 길을 걸어 실록을 날랐던 노비와 머슴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지킨 이들이다.

社說

박근혜 정부, 지방의 절규 들리지 않는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가까워지지만 지방과는 ‘불통의 연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고갈, 산업기반 열악, 일자리 부족 등에서 비롯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손길을 갈망해도 속 시원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חק로로 재정지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들이 특별기구 통과를 재촉하고 나선 것은 지자체의 현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인천에서 총회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 20%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분권교부세의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 환원 ▲기초연금 100% 국가재원 충당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탄전을 피운 우(遇)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내세워 지방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반발을 자초했던 게 단적인 예다. 특히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 복지비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 위기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중에 없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도지사협의회가 비장한 각오로 협력회의 통과를 주문한 것을 예상할게 넘기면 안 된다. 이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존재의 갈림길에 다다른 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표류 중인 협력회의가 법으로 통과될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송มอบ 열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 수도권 완화정책 포기 등을 천명해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우고도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물론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광주은행과 비교되는 경남은행 사수 노력

광주은행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한 광주·전남상공인연합, JB(전북은행)금융지주, BS(부산은행)금융지주, DGB(대구은행)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7곳 가운데 지구촌영농조합이 탈락해 6곳이 본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광주은행 매각 조건으로 최고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에서의 비중, 자금조달 능력 등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지역자본인 광주·전남상공인연합도 그만큼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인과 사·도민이 나서고 있을 뿐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전남도의 열의는 찾기 어렵다. 광주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민영화 추진 중인 경남은행은 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5명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경남은행이 타은행에 인수될 경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지역 인수가 안되면 금고 지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경남은행에 대한 지역 ‘사수’는 무엇보다 타은행에 인수되면 당장 지역경제의 혁신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등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이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광주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은행 사수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 광주은행은 말 그대로 지역이 주인이 돼야 한다.

양동욱의 S스토리

성의 거래 : 성욕과 권력의 역사 (1)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침으로써 신성한 임태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에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제가 여성의 신전 봉사 의무의 수혜자였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사제에 비해 여성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성한 성교를 수행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신전 순배자들이나 여형자들이 맡게 된다. 이들이 맡아 드는 여성에게 은전을 던지면 여성은 그 남성에게 성적 환대를 베풀어야 했다. 이렇게 신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몸을 바쳐 신전 봉사 의무로부터 해방되면 여성은 남성에게 받은 돈을 신의 제단에 바쳤다.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은 남성에게 쉽게 선택을 받아 신전 봉사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자유를 얻을 때가 아니라 신전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의 신전 봉사 의무를 대신하면서 남성에게 쉽게 선택되어 신전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성을 고용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성매매의 최초 기록인 신전 매춘부이다.

신전 매춘부들은 자신의 업무를 수처스럽게 여기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하는 동안 여성은 자신의 위치로, 돈을 내는 남성 역시 신의 위치로 승격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전 매춘의 풍습은 바빌로니아 이외에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인도, 일본 등 고대 사회에 만연하였는데,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

은 자신의 딸을 신전 매춘부로 바쳐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집트의 폭군 쿠푸왕은 자신의 딸들에게 신전 매춘을 강요해 피라미드 건축비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여성에게 주어진 신전 봉사의 의무는 표면적으로 여신을 향한 신앙심의 증명이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남성보다 지위가 낮았던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화하려는 지배자들의 권력으로부터 성매매가 발달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종교적 매춘 관습은 점차 사라져가고, 도시나 향구를 중심으로 권력을 가진 남성의 성욕과 생활고를 겪는 여성의 몸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즉 상업적 성매매가 발달한 것이다.

상업적 성매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장(公娼)제도를 탄생시킨다. 이는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이자 정치가인 솔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기원전 6세기경 히타여리즘, 즉 국가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축첩(蓄妾)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아테네 시내 아레오오스테스 공전에 여성들을 모여 살게 하면서 돈을 받고 남성의 첩이 되거나 몸을 팔도록 한 것이다. 축첩제도가 도입되자 당시 아테네 남성은 “도시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공창제도를 설치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욕망과 권력의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의 몸은 자본주의 교환관계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채 빠져나오기 힘든 어둠의 터널과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침묵 속에 남성 중심의 성 의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는 남성의 성욕은 너무 강해서 일부일처제 결혼에 만족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매매 제도를 통해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만연하여 국가의 안락과 평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을 파는 여성을 사회 구조적인 권력의 희생자로 보기보다는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성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이다. 성의 거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상업적 성매매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며, 결국 성매매는 사회악이지만 필요악으로 뿌리내리게 된다.

로마의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는 목욕탕에서 성매매가 유행하였는데,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영향으로 고대와 중세 유럽에서도 성매매가 성행하였다. 중세 유럽지역에서는 엄격한 일부일처제 유지를 위해 축첩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프랑스의 아비뇽에서는 고대의 신전에서처럼 교회 내 매음굴이 존재하였다. 심지어 16세기경 고향 울리우스 2세는 교회 제정을 위해 로마에 매음굴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욕망과 권력의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의 몸은 자본주의 교환관계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채 빠져나오기 힘든 어둠의 터널과 거래를 하게 된다.

기고

광주시민의 행복을 여는 생활체육 하나쯤 갖자



안기석
광주시 체육U대회지원국장

체계와 재정확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면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서 또 다른 형태가 추가됐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전국적 조직이 구성돼 생활체육 발전의 기틀을 잡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생활체육은 지역주민이 여가시간에 개인적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사회체육활동으로 재정립되었다. 여기에, 2004년부터 시행된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생활체육은 여가시간의 확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향상을 기반으로 집적인 변화가 모색되었다.

최근 정부는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포츠 733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주일에 3회 이상 1일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의미다. 이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로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운동시간 전략이다.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생활체육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누구나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학교운동장 및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 광주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각종 운동공간 마련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다. 또한, 생활체육 1시민 1종목 갖기 운동, 시민들이 모이기 쉬운 곳에 생활체육 교실 및 생활체육 광장을 운영하고 이곳에

각 프로그램에 맞게 생활체육 지도자 등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초로 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광주는 ‘2013 건강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평가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평가로 앞으로 건강한 도시 1위를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광주시민의 건강은 바로 생활체육에 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치고 힘든 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끈을 이어주고 지역과 계층의 벽을 허물어 준다. 개인의 의료비를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자료로 미국 보건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고,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연간 46만원, 성인전체로 16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체육은 단순히 신체 건강차원을 넘어 ‘시민의 행복’이다. 인강활동의 적기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생활체육의 한 종목을 반드시 선정하여 참여했으면 한다. 그러면 광주시는 머지않아 시민 모두가 생활체육 1시민 1종목 갖기 운동에 동참하여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전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은 지역중심의 생활체육 환경 속에서 꽃을 피워 이것이 다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지난 19일 인천시 남구 주안초등학교 체육관 역도경기장. 전국체전의 뿌리는 1920년 7월 창설된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가 같은 해 11월 배재고보에서 개최한 제1회 전(全)조선 야구대회다. 1938년에 일제 치기에서 161kg을 성공시키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상대 선수는 1차 시기 148kg에 이어 2차 시기에서 160kg을 들 어올리는 데 실패하고 3차 시기에서야 (1965년), 58회(1977년), 68회(1987년), 74회(1993년), 88회(2007년), 89회(2008년) 등 모두 7차례 개최됐다.

오랫동안 고된 훈련 과정을 견디면서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은 온 힘을 다해 명승부를 벌이며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수 체전에서 사재혁(당시 강원)이 세웠던 영 박태환과 리듬체조 손연재, 도마 양 학선 등 스타선수들은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선수들은 종합 대회인 전국체전을 ‘한해 농사의 마무리’라고 표현한다. 고 려의 명예를 걸고, 선전하는 광주·전남 선수단에 갈채를 보낸다.

/송기춘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94회 전국체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점국 2200-66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